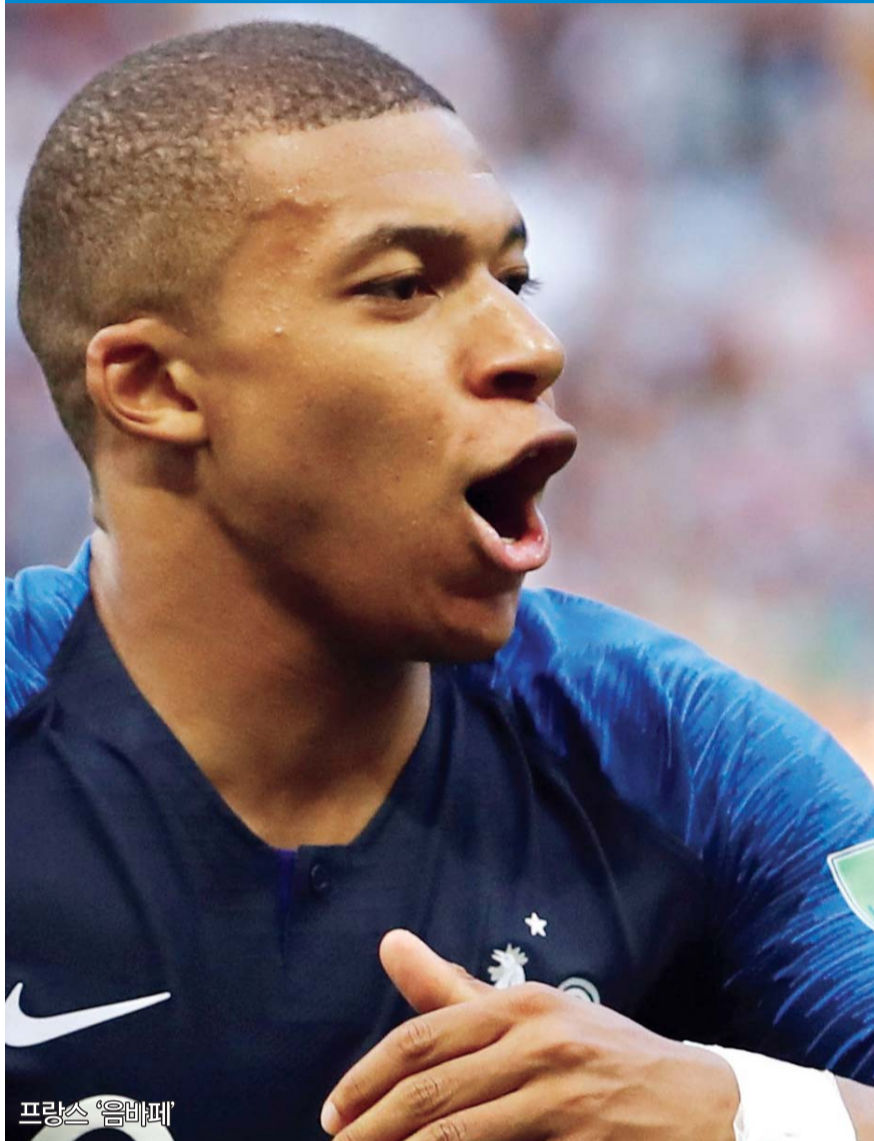


‘창 vs 창’ 한 여름밤의 진검승부

프랑스 vs 벨기에 내일 새벽 3시 ‘4강전’



프랑스 ‘아트사커’ 전인 음바페·그리즈만·지루 출격 완료
벨기에 ‘황금세대’ 루카쿠·아자르·데 브라위너 화력쇼 ‘기대’

2018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 첫 경기인 11일 오전 3시 프랑스-벨기에전에선 어느 때보다 화끈한 골 잔치가 기대된다.
조별리그에서만 9골, 16강과 8강에서 각각 3골, 2골을 뽑은 벨기에에는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팀이고, 프랑스도 전체 득점은 많지 않지만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에서 네골을 몰아치는 화력쇼를 선보였다.
이웃 프랑스-벨기에가 펼칠 ‘창과 창’의 대결 중심에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젊은 피’들이 있다.
프랑스의 만 19세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는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 등 슈퍼스타들이 줄줄이 집으로 돌아간 러시아 월드컵에서 살아남아 가장 빛나는 별이다.
이미 지난해 네이마르 다음으로 가장 비싼 몸값을 기록하고, 유럽의 최고 유망주에게 주는 골든보이상도 수상한 음바페는 ‘펠레급 활약’으로 프랑스의 4강 진출을 견

인했다.
조별리그 페루전에서 월드컵 데뷔골로 프랑스의 최연소 월드컵 득점자가 됐고, 아르헨티나전에선 2골을 넣어 1958년 펠레 이후 월드컵에서 멀티골을 넣은 첫 10대 선수가 됐다.
음바페와 더불어 3골을 넣은 앙투안 그리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다른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올리비에 지루(첼시)가 프랑스의 아트사커를 이끈다.
프랑스에 ‘골든보이’ 음바페가 있다면 벨기에엔 ‘황금세대’가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위로, 러시아 월드컵 4강 팀 중 순위가 가장 높은 벨기에에는 20대 중후반 황금세대 선수들을 중심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로멜루 루카쿠(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대회 4골(1도움)을 쏟아내며 득점왕 경쟁에서 잉글랜드 해리 케인(토트넘)을 2골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190cm, 94kg 우월한 체격에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루카쿠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유망주에서 이제 벨기에 대표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2골 2도움을 기록 중인 벨기에 주장 에덴 아자르(첼시)도 황금세대의 또 다른 주축이다.
10대 시절 프랑스에서 축구를 배우고 프랑스 리그앙 릴에서 프로에 데뷔한 아자르는 이제 프랑스의 두 번째 월드컵 우승 도전을 위협하는 선수가 됐다.
여기에 조별리그에선 다소 주춤했던 케빈 데브라위너(맨체스터 시티)도 브라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벨기에의 화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격진 못지않게 양 팀 수문장들의 맞대결도 관심사다. 이전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프랑스 위고 요리스와 벨기에 티보 쿠르투아 모두 바쁜 90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FIFA 랭킹은 벨기에가 프랑스(7위)에 앞섰지만 1998년 한 차례 우승한 프랑스가 도박사들의 예측에선 살짝 앞선다.
두 팀은 지금까지 73번 만나 벨기에가 30번, 프랑스가 24번 이겼다. 월드컵에선 1938·1986년 두 번 다 프랑스가 승리했다. /연합뉴스

“메시도 막았는데...케인 걱정 안 해”

크로아티아 달리치 감독, 잉글랜드와 4강전 ‘자신감’

20년 만에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크로아티아의 즐라트코 달리치(52) 감독이 ‘종가’ 잉글랜드와 4강전을 앞두고 득점왕 후보 해리 케인(토트넘) 봉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달리치 감독이 이끄는 크로아티아는 지난 8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전에서 개최국 러시아와 120분 연장 혈투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겨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처음 출전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3위를 차지했던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무려 20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린다.
크로아티아는 오는 12일 오전 3시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와 준결승을 펼친다.
달리치 감독은 9일 B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도 막아냈다”라며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도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잉글랜드의 케인과 라힘 스틸링이 위협적인 존재다. 눈에 띄는 약점도 없다”라고 잉글랜드의 전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크로아티아의 힘을 믿는다. 우리는 잉글랜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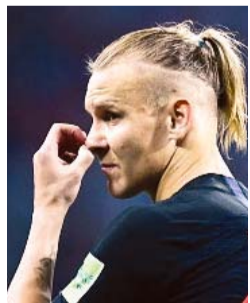


달리치 감독은 “케인은 득점 순위 1위이고 막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정상급 중앙 수비수들이 있다. 메시는 물론 크리스티안 에릭센(덴마크)도 막아냈다. 케인도 저지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친 우크라이나 구호’ 논란

크로아티아 ‘비다’ 준결승 출전

러시아전 승리 이후 정치적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크로아티아 대표팀 도마 고비다가 준결승 출전정지 징계를 면하게 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비다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검토한 후 비다에게 경고를 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고 AFP통신 등이 9일(한국 시간) 보도했다.
지난 8일 러시아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8강전에서 연장전 골을 넣은 비다는 승부차기 끝에 경기에서 승리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승리를 자축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축구팀 디나모 키예프에서 뛰고 있는 비다는 이 영상에서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 구호는 러시아에 반대하는 친(親) 유럽연합(EU) 성향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주로 외치는 구호다.
러시아 언론들은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비다는 크로아티아축구협회를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며 내가 여러 해를 땀 흘려서 보낸 지지에 대한 감사”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빨간바지 마법사 김세영 레전드 소렌스탐 넘었다



LPGA 손베리 클래식 31언더파 257타 우승
72홀 최저타·최다 언더파 신기록...소렌스탐 기록 넘어
나상욱, 7년만에 PGA 우승... 한국 골프 ‘결경사’

세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남녀프로골프 투어에서 한국 및 한국계 선수가 동반 우승하는 등 세계 주요 투어에서 승전보가 연달아 들려왔다.
먼저 9일 미국 위스콘신주 오나이다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손베리 클래식에서는 김세영(25)이 31언더파 257타로 우승했다. 이는 LPGA 투어 사상 72홀 최저타, 최다 언더파 우승 신기록이다.



나상욱

LPGA 투어에서 종전 최저타 기록은 2004년 카렌 스타플스(미국)가 세운 258타였고, 최다 언더파 기록은 2001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2016년 김세영이 함께 보유한 27언더파였다.
그런데 김세영이 이 두 가지 기록을 모두 새로 고쳐 쓰며 LPGA 투어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다.
김세영은 이날 우승으로 LPGA 투어 7승을 거뒀는데 매치플레이 대회 한 번을 제외한 6승 가운데 5승이 10언더파 이상의 점수였다.
특유의 화끈한 플레이 스타일이 역대 우승 스코어에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국내 투어에서 활약할 때 마지막 날 빨간 바지를 입고 나와 역전승을 자주 거둔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 ‘역전의 명수’ 또는 ‘빨간 바지의 마법사’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재미교포 케빈 나(35·한국명 나상욱)가 밀리터리 트리뷰트에서 정상에 오르며 7년 만에 투어 통산 2승의 감격을 누렸다.
2004년 PGA 투어에 입문, 7년 만인 2011년에 첫 승을 따낸 나상욱은 그로부터 또 7년이 지나서야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그는 우승을 차지한 뒤 미국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말로 “한국 팬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우승해서 기쁘니까”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안선주(31)가 닛폰햄 레이디스 클래식을 제패하며 통산 26승을 거뒀다.
26승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선수 최다승 기록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는 안선주 외에 전미정(36)도 25승을 기록 중이었다.
안선주의 26승은 JLPGA 투어 전체를 통틀어서도 다승 부문 통산 8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또 외국인 선수로는 58승의 투아이위(64·대만)에 이어 2위, 현역 선수 중에서도 후도 유리(42·일본)의 50승 바로 다음이 안선주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아시아나항공 오픈에서는 김지현(27)이 우승했다.
이 대회는 중국여자프로골프(CLPGA) 투어와 KLPGA 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김지현의 우승으로 KLPGA 투어가 외국 투어와 공동 주관으로 중국에서 개최된 대회의 한국 선수 21연승 행진이 이어졌다. /연합뉴스